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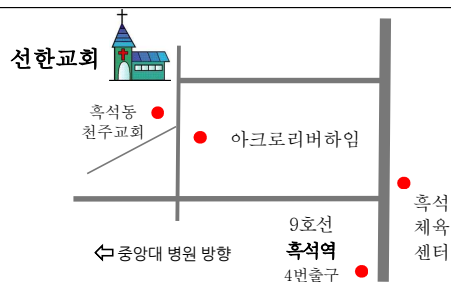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중 국 어 예 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리아회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전 1:00 드보라회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전 3:30 에스더회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국 내 선교사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 인 혁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전임전도사 김 진 만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교육전도사 윤 영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은 퇴 장 로	협력전도사 오 효 남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고 상 돈, 김 대 희	관 리 장 로	손 석 규
	박 희 태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 계 승 (집사장)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장 로	유 신 웅, 조 윤 익		
	박 영 근, 윤 호 중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맛보아 알지어다 (시34:8)
Taste And See

실 천 사 항 3가지 습관 기록 교사훈련 선교사의 삶

삶 의 방 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30.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31.기록된 바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30~31)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1부 오전 9: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2부 오전 11:00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29장 (통일찬송가 29장)
	교 독 문		교독문 11 (시편 17편)
	찬 양 과 경 배	1부 323장 (통일찬송가 355장)	2부 이하은 청년
	대 표 기 도		유 신 웅 장로
	동 영 상		창립 41주년
	말 씬 봉 독		고린도전서 1장 26 ~ 31절
	설	교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임춘배 목사)
	케 익 컷 텅 식		담임목사 및 집사장 부부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교회여 일어나라
축 도		임춘배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예 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4 1 주 년 창 립 기 념 예 배 근 속 자	
	오늘은 교회 창립 41주년 감사예배로 드립니다. *교회에서 떡을 제공합니다.	
	2020년 기준 20년 근속 - 이정진, 심재선, 박수민, 김현석, 배한승, 송혜영, 이소영, 전희영 30년 근속 - 오세영 40년 근속 - 김대희, 김혜선, 유신웅, 이해경	
	2021년 기준 20년 근속 - 손주은, 이찬희, 임주형, 임지수, 임은형 30년 근속 - 박노용, 김미숙, 이태수, 편도선 40년 근속 - 오세일, 오인숙, 오효남, 조윤익, 최호연	
2. 예 배 안 내	1. 주일예배: 당분간 주일예배는 1.2부 각 20명씩 신청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주중예배: 수요일예배와 금요일기도회는 대면으로 드립니다. 3. 각종행사: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4. 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3. 개인경건훈련안내	1. 가정예배드리기 2. 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일독하기(2차): 일독하신분들에게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4. 경건서적읽기 5. 부서별 비대면 성경공부	
4. 코 로 나 1 9 기 도 제 목	1. 열방이 우상숭배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2.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하루 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3.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야가 회복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되도록 기도 합니다. 4. 한국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 도록 기도합니다. 5. 선한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 그리고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6. 선한교회와 가정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기도합 시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개인 경건 훈련에 지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가정예배

얼굴의 광채를 수건으로 가린 모세

찬송 : ‘빛나고 높은 보좌와’ 27장(통 27)

본문 : 출애굽기 34장 34~35절

말씀 : 모세는 많은 시간을 시내산 정상에 머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으로 시내산 정상은 덮여 있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하며 오랜 시간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얼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세의 얼굴에 눈부신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영화로운 빛이 모세 얼굴에서 오로라처럼 빛났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시내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모세의 하산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얼굴 광채에 집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도록 모세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만 자기 얼굴을 가린 수건을 벗습니다.

광채로 빛나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모세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신앙적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내게 집중하게 하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대중이나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높이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지 말입니다. 모세는 행동으로 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자기를 낮추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풍성한 간증 거리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웃에게 나눠야 할 사명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풍성한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면서 나를 높인대거나 이웃을 내게 집중하게 한다거나,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세처럼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수건으로 가리고 오직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이웃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러러보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풍성한 은혜와 간증 거리를 많은 사람에게 나눠 주며 사는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말씀

제목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고전1:26-31)
서론	선한교회가 창립된 지 41주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교회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기억합시다.	
본론	1. 하나님의 부르심	
	(1)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떤 신분이었는지 생각해보라고 권면함(26절)	
	(2) 지혜로운자, 능한자, 문벌 좋은자가 많지 않았음(26절)	
	(3) 이런자들을 택하셔서 존귀한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 ①지혜있는 자들과 강한자들을 부끄럽게하고 있는것들을 폐하려 하심(27,28절)	
	②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29절)	
	③오직 주님을 자랑하게 하시려는 것(31절)	
결론	2. 교훈	
	(1)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2) 지금 나와 우리 교회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3)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있는가?	
결론	오직 구원받은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선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 배 기 도	유신용 장로	윤호중 장로

매일 Q.T.		주님의 결산으로 드러날 충성된 중, 무익한 중	날짜 : 3월 22일
찬양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본문	마태복음 25:14-30		
말씀요약	천국은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재능대로 소유를 맡김과 같습니다. 오랜 후 주인이 돌아와 결산합니다. 다섯 달란트로 다섯 달란트를, 두 달란트로 두 달란트를 남긴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이 자신의 즐거움에 참여시키나,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게으른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습니다.		
목상질문 1	이익을 남긴 착하고 충성된 종 25:14-23 주인은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종에게 어떤 말로 칭찬했나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작은 책임을 얼마나 신실하게 감당하나요?		
목상질문 2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오해 25:24-30 한 달란트 받은 종의 행동은 주인을 어떻게 평가했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중 켜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한절목상	마태복음 25장 30절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난 무익한 종은 왜 슬피 울며 이를 갈았을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잘할걸.'이라는 뒤늦은 후회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 없이 억울하게 쫓겨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의 특징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으면 뉘우치기는커녕 원망합니다. 억울해하지 맙시다.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선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오해하고 달란트를 묻어 버린 저의 악함을 용서하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소원합니다. 비교 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시 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용하게 하소서.		

개인성경공부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심판”	
찬양과 기도	주 예수 대문 밖에 (새 535)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목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제16대 주한 미국 대사를 역임했던 제임스 레이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외교관으로서 삶을 마무리하고 미국 에모리 대학교 교수로 인생의 다음 단계를 시작했을 때 길을 걷다 자신의 집 앞에 앉아 있던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외로운 노인의 모습에 말을 걸었던 것을 계기로 노인과 종종 티타임을 가지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레이니는 인생의 황혼기에 있는 노인에게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레이니는 길에서 노인을 보지 못해 노인의 집을 방문하였고, 노인이 전날 운명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전 코카콜라 회장이었습니다. 한 유족이 레이니에게 노인의 유서를 건넸는데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내 말벗이 되어 준 레이니 고마워요.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레이니 교수는 받은 유산을 에모리 대학의 발전 기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 후 그는 에모리 대학 17대 총장으로 섬겼습니다. 작은 선행이 뜻하지 않은 행운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 선택은 마음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웃에게 유익한 선택을 하고,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변에 해가 되는 선택을 합니다. 작은 선택이었는데 예상 외로 큰 결과를 가져온 일은 무엇이었나요?
말씀 나누기	마태복음 25:31~46
목상포인트	우리는 혈통이나 율법적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입으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7:21 참조).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의 수직적 관계와 더불어 사람들과의 수평적 관계에서도 온전하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단순히 도덕적 선행의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뜻이기에 사람들을 선대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십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후에 행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31~33, 46절)
적용하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날에 나는 어느 편에 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함께 기도하기	그리스도를 통해 저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뜻을 바로 깨닫고 실행하도록 지혜와 힘을 부어 주소서. 이로써 구별된 자의 삶을 충실히 살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하늘 아버지 뜻에 순복하는 기도	날짜 : 3월 26일
찬양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본문	마태복음 26:36-46		
말씀요약	겻세마네에 이르신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시며 제자들에게 자신이 기도할 동안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잔이 지나가기를 바라시지만 결국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구하십니다. 이 같은 기도를 세 번 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셔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 때가 왔으니 함께 가자 하십니다.		
묵상질문 1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예수님 26:36-39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본받아 괴로운 중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일은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깨어 기도하라 26:40-46 세 번의 간절한 기도 후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바뀌셨나요?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 내 마음은 종종 어떤 변화를 경험하나요?		
한절묵상	마태복음 26장 40절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제자들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한 시간’은 기도하신 예수님께나 잠에 빠진 제자들에게나 짧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할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이 드리셨던 짧지만 간절한 ‘한 시간’의 기도는 성도가 드릴 기도의 모범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기도를 요청하신 주님께 졸음으로 응답한 제자들처럼,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한 저를 용서하소서. 주님이 본을 보이신 기도의 자세를 배우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간구하며, 제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게 하소서.		

매일 Q.T.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 주님께 하듯 사랑하는 삶	날짜 : 3월 23일
찬양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본문	마태복음 25:31-46		
말씀요약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모든 민족을 가리실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행한 오른편 사람은 창세부터 그들을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한 왼편 사람은 마귀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입니다.		
묵상질문 1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25:31-40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복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돌아볼 한 사람은 누구며, 어떻게 도울까요?		
묵상질문 2	저주를 받은 자들아! 25:41-46 왼편에 있는 자들이 저주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정함과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일은 무엇이며, 사랑의 계명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한절묵상	마태복음 25장 32-33절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열방은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 보좌 앞에 서야 합니다(계20:11-13). 양과 염소는 한 울타리에서 자랄 수는 있지만, 결코 같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양과 염소를 분별해 세우실 것입니다. 나는 그분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로는 부족합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며, 주님 오른편에 서는 길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저의 모든 행위를 살피시는 주님! 제가 마땅히 선대해야 할 사람을 도리어 상관없는 사람처럼 무시하며 그에게 선을 베풀지 않았던 일을 용서하소서. 굶주린 사람, 아픈 사람, 갇힌 사람을 돌아보며 섬기기를 주님께 하듯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매일 Q.T.		탐욕과 배신의 사람, 사랑과 헌신의 사람	날짜 : 3월 24일
찬양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본문	마태복음 26:1-16		
말씀요약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릴 것이라 하실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분을 죽이려 의논합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 머리에 귀한 향유를 붓자 제자들이 분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일도 기억되리라 하십니다. 유다가 예수님 넘길 기회를 찾습니다.		
목상질문 1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 26:1-5, 14-16 가롯 유다의 배신이 종교 지도자들의 흥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악역이 되지 않도록 내가 조심할 일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 26:6-13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유는 무엇이였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헌신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마태복음 26:5, 15-16절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는 계획을 잠시 멈춘 것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속으로 흥계를 꾸미면서도 의식적 정결은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했던 가롯 유다의 배신이 '명절에는 하지 말자'던 그들의 계획을 도리어 속행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뜻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향해 정확히 움직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을 팔아 불의한 몫을 챙긴 유다처럼 재물에 눈멀어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위해 거룩한 낭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저의 전부와도 같은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모두 부어 드리는 헌신까지 할 수 있도록 제 믿음을 키워 주소서.		

매일 Q.T.		죄 사함을 위해 내주신 주님의 몸, 언약의 피	날짜 : 3월 25일
찬양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본문	마태복음 26:17-35		
말씀요약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이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이고, 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 하십니다. 주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떡은 주님의 몸이고 잔은 죄 사함을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장담합니다.		
목상질문 1	마지막 만찬에 드러난 십자가 사건의 의미 26:17-29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누신 떡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를 위해 살과 피를 내어 주신 예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리고 싶나요?		
목상질문 2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버리라는 말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나요? '나는 예외'라는 태도를 버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마태복음 26장 28절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짐승의 피를 뿌려 하나님과 맺은 언약(출24:8)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삶 없이 짐승의 피로 드리는 그들의 제사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할 뿐이었습니다(사1:11). 이에 하나님은 새 언약을 약속하셨고(렘31:3), 그 언약은 마침내 예수님의 피를 통해 체결됩니다. 짐승의 피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을 배반할 제자와 부인할 제자, 주님을 버릴 제자 모두를 위해 죄 사함의 성찬을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경고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탐심을 몰아내고, 겸손하게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